



2018년 12월 18일(화) 11:4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12. 17 (월)	담당부서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박종원 과장(044-203-4320)	담 당 자	위승복 서기관(044-203-4327) 박일철 사무관(044-203-4321)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상윤 과장(044-215-4530)		손선영 사무관(044-215-453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손주형 과장(02-2100-2860)		김종식 사무관(02-2100-2865)
	환경부 대기환경과 박륜민 과장(044-201-6880)		안중기 사무관(044-201-6881)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재평 과장(044-201-3847)		조태영 사무관(044-201-3850)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이순배 과장(042-481-4545)		윤성웅 사무관(042-481-438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정훈 (02-2100-3626)		장지원 사무관(02-2100-3652)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 ▷ 부품업계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5조원 + α 자금 지원
- ▷ 개소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로 부품기업 일감확보 지원
- ▷ '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現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국내 누적보급 목표도 전기차 43만대(18년 5.6만대), 수소차 6.5만대(18년 923대)로 확대 (당초목표 35만대) (당초목표 1.5만대)
- ▷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 R&D 2조원 투자
- ▷ 제조전문 위탁생산 기업 육성 등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차 시장진입 지원

- 정부는 산업부 업무보고(12.18) 계기, 자동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 그간 정부는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8~10월), 자동차산업발전 위원회('18.11월), 기타 현장방문 등에서 업계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

1. 활력제고 방안 수립의 주안점

◇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에 역점

□ 중소·중견 부품기업 지원 보완·확대

①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부품기업들은 만기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
- ⇒ 이에 정부·지자체·완성차 공동출연금을 활용,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를 위한 신규자금 프로그램을 마련(1조원)하여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부품산업 생태계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 ⇒ 이와 함께 GM 협력사·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들에 대해 만기연장 지원
- ⇒ 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

② 부품기업의 일감확보 지원

- 최근 완성차 생산량 급감으로 부품기업은 일감부족·경영악화 호소
- ⇒ 지원이 제한적인 금융·R&D 등 직접지원 외, 개소세 감면 등 수요진작을 통해 일감확보를 지원하여 생태계 전반의 활력 도모

③ 민·관 상생협력 체계

- 국내 완성차별로 용자 중심의 개별적인 상생활동을 추진
- ⇒ 현재 부품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완성차사가 정부·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유동성 지원 등)에 공동 참여하는 체계 구축

□ 우리 부품산업 생태계의 구조변화 유도

① 2·3차 협력업체

- 공급사슬 끝단에 위치한 2·3차 협력사를 금융·상생협력·기술 개발 등 모든 지원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방안 수립

②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

- 부품기업들은 영세성·저수익 구조로 R&D 등 혁신 투자여력 고갈
- ⇒ 부품기업들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하여 사업재편 제도·시장 자금 등을 본격적으로 활용

③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차 시장 진입

- 우리 자동차산업은 Player 다양성·시장역동성이 낮은, 완성차社 중심의 폐쇄적 구조 (* 글로벌 미래차 시장은 IT기업 참여, 완성차-IT기업 제휴 등 경쟁구도 변화)
- ⇒ 중소·중견기업이 위탁생산·직접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미래차 시장에 진입하여 New Play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 친환경차 선도국으로 비전 제시

① '22년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 10% : 글로벌 수준*(5%)의 2배에 이르는 과감한 목표 (* '22년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비중은 약 5%로 전망)

- 규모의 경제 조기 달성 + 初期 시장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 이를 통해 부품기업들이 친환경차 시장으로 조속히 전환 가능한 발판 마련

② 친환경차 사용 확대

- 규모의 경제 달성효과 등으로 '22년경 전기차 가격(보조금 지급前)은 5 → 4천만원으로, 수소차는 7 → 5천만원으로 인하 가능 전망
* 대당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축소
-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現 38톤 → '22년 829톤으로 확대 전망
- 팽창하는 수요·공급을 뒷받침하여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 로드맵 제시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골자 】

①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유지

- ① 경쟁력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 **3.5조원+α**
 - ▶ 정부·지자체·완성차 공동출연 신규자금 : **1조원**
 - ▶ 신·기보 보증 프로그램 : **1조원**(지원 중) / 긴급경영안정자금 : **1천억원**(자동차 부품기업 우선 지원, 소진시 1천억원 추가)
 - ▶ GM협력업체 대출·보증 만기연장 : **1.2조원**
 - ▶ 수출신용보증 만기연장 : **2천억원** / 산업위기지역內 부품기업 만기연장 : **630억원**
- ② 환경개선 효과가 큰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
 - ▶ 新車 개소세 **30% 감면** 연장('18.말→'19.상) / 노후경유차 등록말소後 신차 개소세 **70% 감면** ('19)
 - ▶ '19년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전기차 '18년 2.65→'19년 4.2만대, 수소차 746대→4천대)
- ③ 상생노력 강화
 - ▶ 협력이익공유형 R&D 신규도입 추진 / 완성차-협력사간 결제조건 공시의무 부과 추진 (하도급법 개정 추진)
 - ▶ 노사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연구회 운영

② 대형화·글로벌화 등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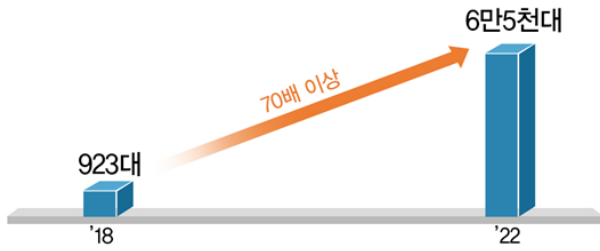
- ①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원) 등을 활용하여 신성장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사업재편 지원
- ② 글로벌 부품시장 개척 지원
 - ▶ 수출단계별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해외 사무소 확대 등 글로벌화 지원
- ③ 부품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 ▶ **年 10개사** 이상 기업활력법 지원 등 사업재편 과정 밀착 지원
- ④ 부품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2년까지 **2천개사**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③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하여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

- ① 친환경차 국내생산비중 **10% 달성** 및 국내 보급목표 대폭상향 조정
 - ▶ 보급목표 : 전기차: '18년 5.6 → '22년 43만대(7배↑) / 수소차: '18년 923대 → '22년 6.5만대(70배↑)
 (당초목표 35만대) (당초목표 1.5만대)
 - ▶ 수소버스 : '18년 2대 → '22년 2천대(1,000배↑)
 (당초목표 1천대)
- ② 친환경차 이용확대 및 인프라 구축
 - ▶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 : '18년 70% → '20년 100%
 - ▶ 수소차 충전소 : '18년 15개소 → '19년 80여개소 → '22년 310개소(20배)
 - ▶ 전기차 충전소 : '18년 약 3,800기 → '22년 1만기
- ③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 투자, 中小·中堅 미래차 시장진입 지원
 - ▶ 제조전문 위탁생산 기업, 전기버스 전문기업 등 New Player 육성
 - ▶ 개방형 전기차 플랫폼 지원 등 中小·中堅이 직접 전기차를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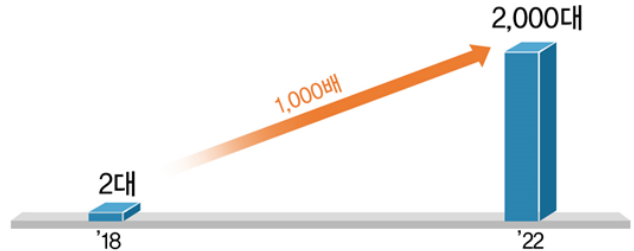
〈 친환경차 보급목표 및 주요전망 〉

【 수소승용차 국내보급(누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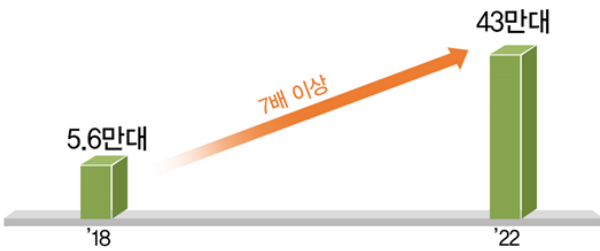
* 가격 7천만원 → 5천만원

【 수소버스 국내보급(누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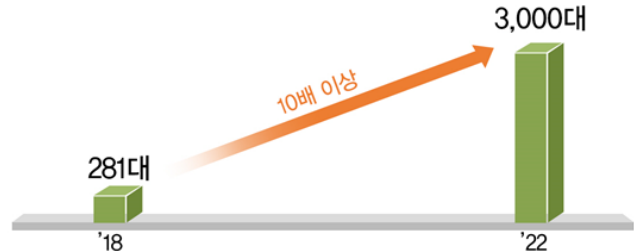
8.3억원 → 4억원 이하

【 전기승용차 국내보급(누적) 】



* 가격 5천만원 → 4천만원

【 전기버스 국내보급(누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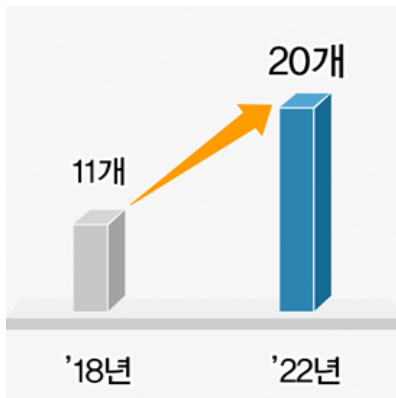


4.5억원 → 4억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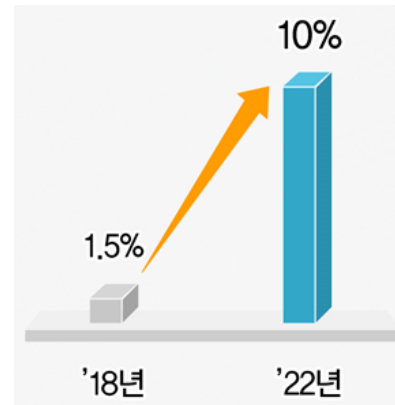
【 수소충전소 구축 로드맵 】



【 매출 1조 부품기업 】



【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 】



2. 활력제고 방안 주요내용

(1) 부품기업들에게 유동성, 일감확보를 지원하여 부품산업 생태계 유지

- ① **(자금지원)**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기업들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대출 만기연장 등 3조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함

【 신규 자금공급 】

- ① (장기자금) 정부·지자체 및 완성차사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하여, 1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 (P-CBO 방식)
* 중소기업에 150억원, 중견기업에 250억원까지 지원
- 중견기업도 지원가능, 3년 고정금리로 지원하여 자금조달 문턱을 낮춤
- ② (긴급자금)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1천억원) 신청 요건 완화 및 우선배정, 소진시에는 1천억원 추가 투입 (중진공)
* (현재) 세금체납 등은 지원제한 → (개선) 자동차부품 예외
- ③ (보증지원) 중소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 중 (신용보증기금 7천억원, 기술보증기금 3천억원)

【 만기 연장 등 】

- ① (한국GM 협력업체) 현재 운영 중인 1.2조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
- ② (무역보증) 2천억원 규모의 기존 수출신용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 보증을 통해 조기 현금화 지원 (무보)
- ③ (산업위기지역)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 소재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6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됨

*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 정책금융기관 면책 등 】

- 정책금융기관 등이 시장기준에 따라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추진
- 자동차 부품업종에도 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 추진

② (부품업계 일감확보) 개소세 감면 연장·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통하여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를 지원할 예정임

① (개소세)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기간 ('18.7.19~12.31)을 '19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함

② (노후 경유차)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9년(1.1 ~ 12.31) 개별소비세 70% 감면 (既 발표)

* '18.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는 334만대

③ (친환경차) '19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차 4만 2천대, 수소차 4천대로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

* 전기차 보급 예산(천대) : ('18) 26.5 → ('19) 42 / * 수소차 보급 예산(대) : ('18) 746 → ('19) 4,000

④ (교통약자 지원) 첨단 안전부품(긴급제동장치·차선유지장치) 수요창출 방안도 검토

③ (상생노력 강화) 새로운 상생모델 도입과 공정거래 지원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완성차 기업의 상생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협력이익공유) 정부는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위탁기업·수탁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이익공유형*** R&D 신규도입을 추진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계약 체결 → 공동 프로젝트 수행결과로 창출된 이익을 계약에 따라 공유

○ (결제조건) 완성차사와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조건**(현금, 상생결제, 어음 등)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함

- 대금 지급기일·방식 등을 공표하여, 2·3차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 (노사관계 연구회) 노·사·정 등이 함께 산업경쟁력·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영향 등을 연구하고, 업계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국내 부품기업들이 대형화·글로벌화하여, 국내 완성차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질개선 지원

- ① **(대형화·전문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원)를 활용하여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임 * 쏘 주력업종 활용 가능
- ② **(글로벌화)**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할 예정
 - ① 「해외 바이어 연계(코트라) → R&D·인증(산업부 등) → 투자·무역보험 지원(산은, 무보)」의 단계별 서비스 제공
 - ② 中·美 등 해외 수출거점의 중소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무소 확대와 신흥국 전략시장의 지원사무소 신설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 KOTRA 무역관에 자동차 부품기업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 제공, 현지 전담직원을 통한 마케팅 지원
 - ③ 신흥국(베트남·인니 등)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하여 완성차사 해외시장 진출 계기 등을 활용, 글로벌 진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
 - ④ 부품기업들이 GM·르노 등 완성차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납품 확대
- ③ **(사업재편 지원)**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
 - ① 사업재편·사업정리 과정에서 법률·금융·M&A 자문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운영 검토
 - ② 「기업활력법」 활용, 향후 年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
 - ③ 사업재편 등에 따른 휴·폐업시 공장부지·기계설비도 신속·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 산단 중심으로 부지매입 지원('19년 400억원, 산단공), 기계거래소는 중고기계 경매·수출 대행
 - ④ 퇴직자 재취업('19년 800여명), 전환교육 실시(1,300여명) 등 부품기업의 퇴직인력 안전망도 운영 ('19년 206억원)

④ **(생산성 향상)** 부품기업 현장의 공정기술, 부품 고도화 등을 지원

- 산은·기은 대출지원을 통해 '22년까지 중소 부품기업 2천개사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年 500개사 지원)
- 내연기관 부품 고부가가치화, 수주 연계 기술개발 등도 지원('19년 1,053억원)

(3)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하여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

① **(국내 年생산)** 친환경차 年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2년 10%이상으로 확대 (* 연간 친환경차 생산대수/연간 전체 생산대수)

-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年 3만 6천대 → '22년 25만대로(7배), 수소차는 현재 300대 → '22년 5천대(17배) 이상으로 확대 기대

② **(국내 누적보급)** 친환경차 국내보급 목표('18.6 발표)를 대폭 상향하여 전기차 '18년 5.6만대 → '22년 43만대, 수소차 '18년 923대 → '22년 6.5만대로 확대
(당초목표 35만대) (당초목표 1.5만대)

- ① 또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現 70%에서 100%로 상향('20년)
- ②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2년까지 2천대(누적)를 보급
- ③ 이와 함께 전경버스도 개발·실증('19~'20)을 거쳐, '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갈 계획임
- ④ 수소택시는 '19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
- ⑤ 친환경차 생산 전환·신설 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지원

③ **(충전인프라)** 국민들이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 (수소차 충전소) 現 15개소 → '19년 80여개소(주요권역·교통망) → '22년 전국 310개소로 20배 이상 확충 예정

- 이를 위해 도심지 150개 · 고속도로 160개 등 거점에 집중설치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 SPC('19년 초)가 이 중 100개를 구축
-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임
- 규제에 막혀 있는 도심충전소 구축도 규제특례 · 임시허가(산업융합촉진법) 등을 활용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할 예정

○ (전기차 충전소) 현재 3,800기 수준을 '22년 1만기로 확대하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

⇒ (기대효과) 생산확대 +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22년 전기차는 (보조금지급전) 5 → 4천만원, 수소차는 7 → 5천만원으로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2년 829톤(20배 이상)으로 확대가 기대됨

④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 · 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임

【 미래차 기술개발 주요내용 】

- 전기차는 주행거리 향상(400 → 600km), 충전시간 저감(200 → 400kW)과 함께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 추진 (5천억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 수소차는 16만 km인 내구성을 50만 km로 확대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 (3천억원 규모 예타 중)
- 자율주행차에는 1조원을 투입, 부품기업들이 전자 · 통신 · IT 융합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19.1분기 예타 추진 예정)
- 미래차 개발의 핵심인 고급인력 공급을 위하여 '22년까지 석 · 박사급 전문인력 1천명 이상 양성

④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 시장에서 New Play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차 시장진입과 수요확대를 지원

① (제조전문 위탁생산) 중소·중견기업이 완성차를 위탁받아 생산할 경우, 재정·금융·기술개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

* 고용지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 지원 ('19년 지원기준 개정)

② (전기버스) 민간투자를 통해 전기버스 전문기업의 양산·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지자체-민간펀드-버스업체 간 협업모델」을 창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될 경우 전국 확산

【 전기버스 선도 프로젝트(안) 】

- (지자체) 여객운수회사(버스 운영)가 노후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규모 교체토록 하는 로드맵을 마련
 - * S시 사례 : 1천대 전기버스 도입('19~'22) 등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계획 수립
 - (민간투자사) 운수회사에 구매자금 지원 (초기 구매비용 부담 완화)
 - (정부) 지자체로 구매보조금 배정, 전기버스 충전요금 할인, 전기버스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지원
- ⇒ (전기버스 제조회사) 대규모 물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가격 인하와 일감확보, 지역 내 일자리도 창출 가능

③ (전기차) 중소·중견기업이 전기차를 직접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R&D에 필요한 전기차플랫폼을 개발·공개('19~'21, 340억원)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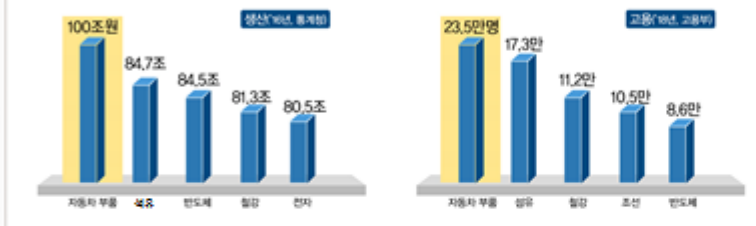
※ 별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위승복 서기관(☎ 044-203-4327), 박일철 사무관(☎ 044-203-4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일자리의 원천인 자동차 부품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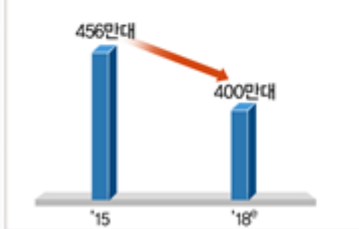
생산·고용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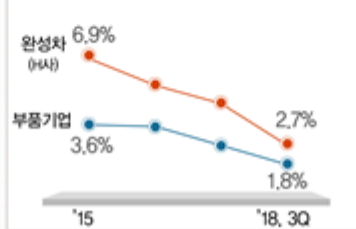
9천여개의 기업이 전국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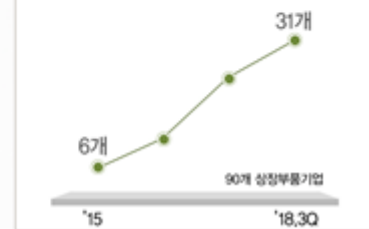
완성차 국내 생산 감소



영업이익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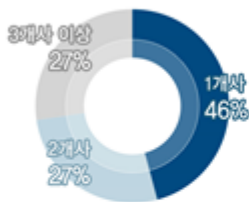
적자기업 증가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

완성차에 대한 높은 의존성

〈 부품사별 거래 완성차 업체수 〉



규모의 영세성

〈 국가별 세계 100대 부품기업수 〉



미래차 투자 부족

〈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글로벌 메이커도 인정한 우수한 부품 공급망

- 대부분의 부품을 국내에서 적기 공급 가능
- 전자·통신·ICT 등 미래차 전반의 탄탄한 제조기반 보유



대책마련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만기연장과 신규투자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절실히 요망”



유동성 위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일감 부족으로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



내수진작을 통한 단기일감 창출 필요



“미래차 생산시설에 투자했으나 물량 부족으로 투자비 회수도 곤란”



친환경차 생산 획기적 확대

※ 지역별 부품업계 간담회(9~10월), 자동차 산업 발전위원회(11월) 등

이를 바탕으로 부품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하였습니다

목표
('22년)

- 매출 1조 글로벌 부품기업 : '18년 11개 → '22년 20개
- 친환경차 생산비중 10% 이상 달성 ('18년 1.5%)
- 국내생산 400만대 이상 유지

3대 정책과제

부품 산업생태계 유지

- 유동성 지원 확대
- 내수확대 등 일감창출
- 상생노력 강화

근본적 체질 개선

- 대형화 글로벌화
- 사업재편 지원
- 생산성 향상

미래차 산업전환 가속화

- 친환경차 생산 획기적 확대
-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 중소·중견의 미래차 진입지원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품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투자·운영자금

- 장기자금 1조원 (신보)
 - 정부·지자체·완성차 공동출연(P-CBO)
- 보증지원 1조원 (신·기보)
 - 중소 부품업체 대상 보증지원
- 긴급 운영안정자금 1천억 + α (중진공)
 - 자동차 부품업종 지원요건 완화

총 3.5조원
+ α

기존자금 만기연장

- GM협력업체 1.2조원
 - 대출·보증만기 1년 추가연장
- 무역보증 2천억원
 - 수출보증 만기연장,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 산업위기지역 680억원
 - 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 대출·보증만기 연장

정책금융 기관

-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 국책은행 경영평가 : 자동차 부품업종에도 자금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내수확대를 통해 업계의 일감확보를 지원 하겠습니다

개소세 감면·친환경차 확대

개소세 감면·경유차 교체

- 승용차 신차구매 개소세 감면(30%)기간 연장
 - '18년말 → '19.상
-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개소세 감면(70%)
- 중대형(2톤이상)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 현 770만원 → 최대 3천만원

친환경차 확대

- '19년 전기·수소차 보급규모를 대폭 확대
 - 전기차 보급(천대) : ('18) 26.5 → ('19) 42,
 - 수소차 보급(천대) : ('18) 0.7 → ('19) 4
- 친환경차 구매시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연장('18 → '20)
 - 수소차 구매시 최대 76만원 부담완화

→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 효과

경소형 상용차 생산

- LPG 상용차 생산 연장



→ 소상공인 수요충족, 창원공장 일자리 유지

첨단 안전부품

- 비상제동장치, 차선유지장치 등 장착 시 지원방안 검토



→ 노약자 등 교통약자 지원

부품업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강소부품기업 육성

- M&A 등 대형화 지원
- 고부가가치화·전문화 지원
 -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펀드(10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 등 활용

글로벌 부품시장 개척

- 수출판로 R&D 자금 등 맞춤형 지원
 - * KOTRA Global Partnering, 부품사 해외 공동사무소 확대 등
- 완성차(GM, 르노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 * GM 우수협력사 125개사 중 한국업체는 27개사

생산성 향상·기술고도화

- 스마트 공장 2천개 보급 (~'22)
- 스마트 산단 구축 (자동차 부품 밀집지역)
- 내연기관 부품 고부가가치화 등

사업재편·전환 지원

- 기업활력제고법 일몰연장 및 사업재편 기능 강화
 - ➔ 사업재편지원단 운영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으로 신속한 워크아웃
 - ➔ 부동산·기계설비 매각 지원,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규제해소

도심지·이동식 충전소 허용, 셀프충전도 적극 검토중

- ➔ 규제 샌드박스로 서울 도심에 수소 충전소 설치

전기충전소

- 매년 1,500기씩 '22년 1만기 구축

미래차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기차

- 주행거리 : 600km 이상
- 충전속도 : 2배 이상 등
 - ➔ 수출 25만대 (現 연 3만대)
 - ➔ 선진국 대비 100% 기술확보



수소차

- 내구성 : 50만 km
- 충전기술 국산화 80% 등
 - ➔ 세계시장 점유율 30%
 - ➔ 세계최고수준 기술 유지



자율주행차

- 9대 핵심부품 국산화
- 자율주행용 인공지능(AI) 개발 등
 - ➔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 수립 (관계부처 합동, '19.1Q)
 - ➔ 레벨 3~4(부분·완전 자율주행)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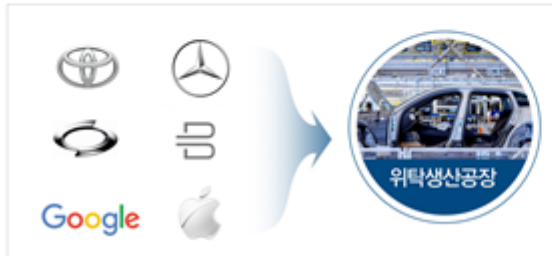
※ '19년의 경우 미래차 개발 등에 약 2천억원 투자 예정

➤ 석·박사급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 '19년 160명 ➔ '20년 220명

새로운 중소·중견 기업이 미래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 위탁생산 공장

- 부품기업의 전기차 시장진입 지원 : 트위지
 - 르노삼성·동신모텍 MOU ('18.12)
- 대기 프로젝트 : 광주형 일자리 등



민간투자 활용 대규모 전기버스 전환

- 민간투자를 활용한 대규모 발주 (S시 운수회사)
- 대량생산으로 가격인하·품질향상 (버스 제작사)
- 지역내 생산 증가,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전기차 산업진입 지원

- 개방형 전기차 플랫폼 개발, 핵심모듈 모듈화·공용화

